

주일의말씀

##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민락 라우렌시오 신부  
성안드레아성당 주임

† 찬미예수님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라는 한 기업의 광고가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밝혀지자 아이들이 얼굴에 미소를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불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두움은 사람에게 무언가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등대의 불빛은 배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집안의 불빛은 가정의 따스함과 행복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인간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묵상해 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빠져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인간에게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밝혀 주십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그리스도의 빛이 인간을 비추시고 그 빛을 따르는 이들은 어둠을 벗어나 참 삶의 길을 걷습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안셀름 그뤼은 〈구원〉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느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를 통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느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머리글에서 말하는 사람 되심의 목적입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요한 1,18) 사람 되심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만의 하느님 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상은 참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에게서 우리는 참 하느님 상을, 하느님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는 보이는 분과 하나가 됩니다. 보면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구원은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들어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깨달음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참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싸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회개의 삶,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생명의 빛 속에 있는지 어둠속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말씀

예수님께서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마태 4,14 참조  
이사 8,23-9,3 1코린 1,10-13,17 마태 4,12-23.

## 15. “하느님이 높으나, 천황이 높으냐?” - 신사 참배

문화홍보실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영영 일본과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망라한 모든 방면에서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말)”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그 노력의 한 줄기가 신사참배의 강요였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의 화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요구였고, 천주교 신자들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23년 서울교구에서는 지향을 불문하고 신사참배를 금지하였고, 1925년에 간행된 교리서와 1932년 반포된 한국천주교 공용지도서에서도 금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이 점점 극렬해지자, 한국의 주교님들은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해 교황청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오 11세 교황님은 1936년 일본의 신사참배를 민속의 일부로 보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교님들의 고심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예절이니까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신사참배가 엄연히 우상숭배이고 종교 자유의 탄압이며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침략이라는 것을 주교님들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좌의 결정에 순종해야 했을 것이

고, 또 이제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한국 교회를 또 한 번의 박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어떤 모양으로든 양보한 것은, 아무리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이 교회를 박해할 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운 죄목은 “무신론자이고 국가와 사회의 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는 데 종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수한 신자들이 이교의 우상과 죽은 황제에게 제사지내기를 거부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 때에도, 천주교인들은 자주 “너희 천주가 더 높으나, 천황께 하가 더 높으냐?”라는 매우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박해를 겁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성당에 다닐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에 타협했던 우리 선배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요즘 우리 모습을 반성해 볼 필요는 없을는지요? 우리는 흑시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관습이나 주변의 압력 때문에 계명을 슬그머니 어기고 타협하곤 하지는 않습니까?

### 주님, 저희의기도를...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3주일

입당 성가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 없으리라.

파견 성가

458 주의 말씀 듣고

영성의 향기

:: 기도의 습관

바쁜 현대인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너무 어렵고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아무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고, 또 기도는 지루하고 힘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마음먹기이고 그 둘째는 습관들이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생활의 요령은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선 꼭 기도생활을 하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물론 마음이 평화롭고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으나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기 싫거나 재미없을 때에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좋건 싫건 무조건 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해도 조금 어려우면 무너지곤 하는데, 이럴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평생 걸리는 일이므로 조금씩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결심을 즐긴 지켜나가려면 마음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몸에도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내고 큰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기도를 정해야 합니다. 굉장한 기도를 하기보다, 열렬한 기도를 하기보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잘 하는 기도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교만은 진리의 반대말



하루는 악마의 대장인 루치펠이 신참 악마 하나와 함께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루치펠이 보니,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길에서 발견하고는 주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참 악마가 그것을 보고 루치펠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죠?” 루치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리의 작은 조각이다.” 신참 악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아니,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는 건 아주 나쁜 소식인데 대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루치펠이 신참 악마를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진리의 조각은 모든 사람 앞에 매일 나타나지. 우리는 그저 저놈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것이 진리의 작은 조각이 아니고 전부라고 믿게 만들면 돼.”

- 율겨은 글입니다 -

- 행사 / 모임 -

**제98차 선택 주말**

일시: 2.11(금)~13(일)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신청접수: 박수진 모니카 (010)2566-0474  
남유조 마리안나 (010)9352-3058  
http://cafe.daum.net/daeguchoice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 음악원 23기 모집**

문의: 255-4847  
**어버이성경 평생교육원생 모집**  
접수기간: 1.1(토)~2.22(화), 성서교육관  
월요일: 10:00~12:30, 19:30~21:30(루카복음, 시편)  
거룩한독서반: 수·목요일(10:00~12:30, 요한복음)  
대상: 어버이성경학교 졸업자, 동등자  
문의: (010)4910-4627 / (010)2816-7367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ME주말**

대구 286차: 2.11(금) 19:00~13(일)18:00  
장소: 한티 피정의집, 문의: 473-5712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고스 말씀가족 창세기(성인반) 겨울연수**

일시: 2.18(금)~20(일) 2박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사수동)  
회비: 10만원, 선착순 55명  
문의: 성서사도직담당 250-3082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유학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자녀유학시 경비지원, 무료 어학연수기회  
전화: 526-0111 (http://tesol.cu.ac.kr)

**2011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문의: 850-3056 / 3366

대구가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신입생모집**

대상: 세례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내용: 신, 구약, 신학일반(그리스도론 등)  
원서접수: 2010.11.8.(월)~2011.2.11(금)  
문의: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학교육부  
(02)745-8339 (ci.catholic.ac.kr)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6기**

일시: 3.11(금)~13(일), 회비: 16만원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35

**여대생 기숙사 안내**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국민대 건너편)  
문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www.rcm1892.net)

**부산 용호동 묘지 연구자 파악**

부산교구 용호동묘지의 연구자님은  
주소, 연락처를 부산교구 묘지관리사무실  
(월~토 051-628-4162)에 신고하세요.  
친척과 상의하여 중복신고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 집' (종교무관)**

장소: 대전 서구 괴정동 1143  
문의: 성체선교 클라라 수녀회  
(042)534-8876

- 직원 채용 -

**교구청 비서실 직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주임신부추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마감: 1.31(월) 17:00 교구청 본관 1층 관리과로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문의: 250-3016

**선남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18세 이상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문의: (054)933-3120

**합천 성모유치원 정교사 모집**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55)931-1285 / (010)7339-1285

- 안내 -

**오순절평화의미를 후원회 미사**

일시: 1.24(월) 11:00  
장소: 고산성당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문의: (051)782-0765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우련(유스타나), 김정자(울리아), 박주현(베드로)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24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교정시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5일(화) 오후2시	성모당
구미지역 밀알후원회미사	1월 24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바논의 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1월 27일(목) 오후2시	삼덕성당
군중후원회 미사	1월 24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29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이원 의료기**

혈관계·혈당계·혈체어·인마기  
뜸·부항기·찜질기·체온계  
글루코사민·오메가3·칼슘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의약백제/전문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

3대를 전통과 신도봉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랑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성질환, 생장기 어린이, 수험생,  
갱년기 여성교우님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강남 피아노사**

중고피아노가 매입  
조음 윤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 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우리다원 & 우리웃**

우리나라 수사님께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  
관리 및 감독하여 식약청 허가를 받은 보이차!  
전통차, 자연염색류, 우리한복 다기 및 다도구  
수정다례원 원장 정수자 (엘리사벳)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768-3(희망로)  
010-3510-2184

**강북 행복을 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아파트 사거리  
파리비게트 3층  
T. 323-2875 / 323-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최고의 원초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대한 청정지역 명품 김  
**김의 이조맛김**  
성선(김기)면 마면 비저희 성모회·지모회 등 각종 단체 기증용  
이 경 숙(모니카) 011-504-5810  
광천분사 : (041) 641-3838 대구지사 : (053) 255-3836  
한계라도 배송해드립니다. 3만원 이상 배송부 무료